송광사 소장 희귀 전적들, 디지털로 만난다

동국대 한국불교문화포털, 9월 30일 일반에 공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송광사 성보박물관, 자료 제공
삼성문화재단서 디지털 촬영해
고려 교장 등 희귀 자료들 확인
韓불교 인쇄문화 연구 중요자료



승보종찰 송광사의 희귀 전적들을 아카이브한 동국대 한국불교문화포털 메인화면.

승보종찰 송광사가 소장한 중요 전적들을 디지털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 스님)은 "전남 순천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가 삼성문화재단(이사장 김황식)의 후원을 받아 촬영한 조선시대 간행 목판과 중요 복장전적을 9월 30일 한국불교문화포털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이브 사업은 지난 5월 원적에 든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남은 당 현봉 대종사의 원력으로 시작했다.

송광사 성보박물관은 △조선시대 목판 70종 △2015년 인출된 인경본 60종 △중요 전적 30점을 제공했고, 삼성문화재단은 1만 7500여 컷에 이르는 고해상도 디지털 촬영을 진행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삼성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해당 자료들의 서지와 해제 작업을 진행했으며, 해당 디지털 촬영 이미지들은 아카이브 서비스를 통해 공개됐다.

송광사 목판은 주로 16세기에서 17세기에 판각된 불서로 70종 3900여 판이 전해진다. 내용별로는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의 저술 △간화선 관련 선(禪) 전적 △강원 이력과목과 한자학습 등 승려 교육 전적 △정토·관음·지장 신앙서 및 불교의례서 △부휴선수(1543~1615)를 비롯한 부휴계 적전(嫡傳)의 시문집 등이 있으며, 이는 조선 후기 불서 간행의 특징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다. 이 중 1529년에 제작된 〈인천안목〉을 포함해, 6종 2491판은 2016년 보물로 지정됐다.

송광사 중요 전적 30점은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 주도한 고려 교장(敎藏) 전래본 5점을 비롯한 복장전적들로, 이들 역시 대부분 보물로 지정됐다. 특히 조선 전기 간경도감에서 중수(重修)한 고려 교장본과 전라도 광주목에서 고려 교장을 새로 판각한 조조본(雕造本) 등이 주목된다. 이 같은 자료는 국내외 유일본 및 희귀판본으로, 서지학적 가치는 물론 동아시아 고승들의 문헌과 사상을 연구할 수 있는 불교학 자료로써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송광사는 16세기 말 정유재란, 1842년 대화재, 1950년대 전후 여순 항쟁과 한국전쟁으로 여러 차례 전소됐으나, 조선시대 전래 불서와 목판 대부분 온전히 남아 있다. 이번 송광사 기록유산 아카이브 구축은 고려 재조대장경, 고려 교장, 조선 전기 간경도감 중수본 및 조조본, 조선 후기 사찰 목판 등 한국불교 출판 인쇄 문화의 전통을 면밀히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국내 사찰과 기관이 소장한 불교 고문헌을 조사 및 촬영하는 사업을 진행해 이를 아카이브 서비스로 제공해왔다"면서 "이번 송광사 사업을 통해 조선시대 사찰에서 간행한 불서 목판을 처음으로 아카이브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목판 이미지를 반전해 제공함으로써 경전의 원문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인경한 촬영 이미지를 함께 서비스로 제공해 목판과 비교해 볼 수 있게 했다"며 "이번 아카이브를 통해 조선시대 사찰의 목판 인쇄술을 더욱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이번에 공개하는 송광사 자료를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kabc.dongguk.edu)에도 공개했다.

은해사 원터 고려·조선 사찰 전각지 확인

불교문화유산硏 · 국가유산청
舊址 시굴 현장설명회 개최해
건물지 및 '湧庵'명 기와 출토


영천 은해사 구지에서 확인된 고려~조선 건물지 전경.

영천 은해사 원터로 추정되는 곳에서 고려~조선시대 사찰 건물지와 암자의 이름이 쓰인 명문기와가 발견됐다.

불교문화유산연구소(소장 호암 스님)는 "지난 8월 16일 국가유산청에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영천 은해사 구지(舊址) 조사 성과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천 은해사 구지는 신라 헌덕왕 원년(809년) 혜철 국사가 '해안평(海眼坪)'에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는 은해사의 전신 '해안사(海眼寺)' 터로 알려진 곳이다. '팔공산은해사사적비'에는 1546년 천교화상이 해안평에서 지금의 자리로 옮겨 은해사(銀海寺)로 개명하였다고 전해진다.

국가유산청과 불교문화유산연구소는 2015년 전국 폐사지 현황조사 사업을 통해 이곳에서 다량의 유물과 석축을 확인해 해당 지역에 대규모 산지가람이 잔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고, '2024년 중요폐사지에 선정해 올해 7월부터 시굴조사를 실시했다.

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조선시대로 편년되는 건물지와 석축 등이 확인됐으며, 범자문 막새편, 평기와편, 분청사기편, 도기편 등이 출토됐다. 특히, 출토유물 중에는 조선 세종 29년(1447년) 현재 조사지역에 '용암(湧庵)'이라는 암자가 존재하였음을 알려주는 '正統十二年戊辰三月日公山下湧庵' 명 명문기와가 확인돼 눈길을 끌었다.

불교문화유산연구소는 "향후 유적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정밀발굴조사가 진행돼 영천 지역과 은해사의 새로운 역사·학술적 자료가 축적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베트남 고판화 특별전 개최

개관 21주년 맞아 12월 30일까지
아미타래영도 판목 등 100점 전시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이 개관 21주년을 맞아 베트남 불화·민화를 총망라하는 대표 고판화를 선보인다.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이 오는 12월 30일까지 관내 전시실에서 '판화로 보는 베트남 불화 그리고 민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박물관이 소장한 베트남 불교판화와 민화 판화 400여 점 가운데 100여 점을 엄선해 공개한다.

한선학 관장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불화를 목판화로 많이 찍어 현재까지도 많은 판목이 사찰에 남아 있다. 이에 고판화박물관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에 걸쳐 베트남 고판화 답사를 진행했다. 하노우 북부, 하노이 후에, 호이안, 호치민 등을 찾아 유명한 목판을 소장한 15개 사찰에서 인경작업을 실시했고, 하노이 수이사 목판연구소와 광남성 화풍사 목판연구소와는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 같은 목판 교류 사업으로 서로가 가진 판목을 활용, 인경한 작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고판화 수집에 박차를 가했다.


천덕사 관음보살도 판화.

전시 1부에는 민중과 함께하는 베트남 불교의 특징을 보여주는 불화판화를 만나볼 수 있다. 높이 1m의 대형 '아미타래영도 판목'과 천무사 '지장보살 판화', 천덕사 대형 관음보살도 판화 등 다양한 판화를 감상할 수 있다. 불경 그림책인 축성사 '관세음보살 보문품'과 부처님 일대기인 '석씨원류 여래응현도' 베트남 버전도 전시된다.

2부에서는 베트남 민화판화 작품이 펼쳐진다. 베트남 민화판화는 동호, 향쫑, 김황, 낭심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명절을 기념하거나 제사를 지낼 때 종교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민중 속에 자리하며 베트남 전통을 드러내고 있다. 전시에는 50여 점이 소개되며 축복판화, 일상생활 판화, 이야기 판화, 종교판화, 문자 판화, 채색 판화 등 주제를 구분해 전시될 예정이다.

한선학 관장은 "'베트남 불화·민화 특별전'에서는 북방 대승불교의 보편성 속에서 각국으로 발전된 독창성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에서 사라진 불교판화를 베트남 불교 판화에서 찾아내 복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이는 미래 동양 문화 시대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아카이브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부처님 뒷모습서 진정한 '나'와 마주하다

이해기 작가 '스스로 빛이 되어'展
10월 14일까지 토포하우스 서울서


Looking Myself, 147cm×125cm, 비단에 금, 2019.

부처님 뒷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관객과 소통해온 이해기 작가가 개인전 '스스로 빛이 되어'를 개최한다. 2017년 이후 7년 만의 개인전으로, 2019년 갑작스럽게 닥친 뇌졸중을 이기고 재활 후 새롭게 시작하는 전시하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전시는 서울 토포하우스 제3전시실에서 10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서울 전시를 마친 뒤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는 토포하우스 대구 제1, 2전시실에서 전시를 이어간다.

전시에서는 2007년부터의 작품 일부와 2023년·2024년 신작을 포함해 'Looking myself(나를 만나다)' '노승과 동자' '쿠시나가라 가는 길' 등 25점이 공개된다.

비단에 먹과 금으로 그린 부처님 뒷모습은 종교의 범주를 넘어 각자의 내면의 깊이를 성찰해주도록 돕는다. 특히 그의 작품은 정신세계와 영혼을 무한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나'라는 주체를 참다운 모습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해기 작가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멈춤의 순간이 필요하다. 이것이 내가 뒷모습에 집중하는 이유"라며 "부처의 뒷모습에서 앞모습은 상상의 영역이다. 뒷모습을 보며 우리는 현실적인 시간을 멈추고 다양한 물음표를 던지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내 앞모습을 완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